

예술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 상처 위무해야

한 권으로 보는

예술철학·예술치료 이야기

조정옥 지음



철학자 니체는 '예술은 살기 위해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어쩌면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내면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드리워져 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제가 또한 예술이기도 한데 예술과 행복이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좋은 환경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예술의 비중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삶과 예술의 간극은 여전히 넓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이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삶은 정신적으로 부유해진다. 철학적으로도 한 차원 고양된다. 한마디로 예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은 어떻게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 작금에 예술치료와 예술철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영화치료 등 다양한 예술치료가 등장해 대중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나무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알기 쉬운 철학이 세계'의 저자 조정옥 박사가 '한 권으로 보는 예술철학·예술치료 이야기'를 펴냈다. 책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 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예술 치유와 예술철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술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그리고 예술의 보편적 원리에 대한 사색이 바로 예술철학"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플라톤에서 근대에 이르는 서양 철학사 속의 예술철학을 소개한다. 다양한 예술철학을 기술과 아울러 철학자와 조화가 되는 예술치료 실습이 담겼다.

"예술치료는 먼 과거부터 있어 왔다. 성서에는 우울할 때 음악을 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붉은 색을 마귀를 쫓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음악을 감상하거나 연필로 펜자를 그리고 난 뒤에 두통이 사라지기도 한다. 예술적인 행위는 두뇌의 평안한 뇌파를 일으킨다고 한다."

2부는 장르의 본질과 역사를 소개하고 치료의 원리와 본질을 제시한다. 저자는 해결의 미학에 따라 예술장르를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문학의 순서로 다룬다.

예를 들어 독서 치료는 '내담자의 개인적, 실존적 문제 상황의 파악과 진단'에서 출발한다. 또한 독서 이후에 본래적 의미의 치료과정인 독서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이 결부된다. "책 속의 이야기와 다른 해결

사실 예술철학은 '철학'과 연계돼 있어 쉽지 않은 분야다. 심리학의 분과인 예술치료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예술치료는 예술의 본질과 특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며



미술치료는 시각적 사고를 활성화하여 감각 통합 등을 통해 대인관계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킨다. 작품은 칸딘스키 '최초의 추상화' <성균관대출판부 제공>

책을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해결방법을 평가하는 질문" 등이 포함된다.

3장에서는 미술치료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술치료는 내담자와 친밀감 및 신뢰감을 쌓는 단계부터 출발해 초기, 중기, 종결기의 단계를 거친다. 또한 미술치료의 기본정신과 다양한 연령대와 불안 장애 등 상황에 따른 방법과 자료를 요약한다.

책의 말바탕에는 예술치료를 아우르는 것은 예술철학의 의의라는 관점이 드러워

져 있다. 그럼에도 예술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위무해야 한다는 전제가 내재돼 있다.

"첫 페이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생각은 예술은 액자를 뚫고 무대를 부수고 삶 속으로 침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벽과 방바닥, 갈바닥과 수도꼭지, 기와와 지붕이 변신하고 그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의 암흑과 피 묻은 상처를 다독일 것이다." <성균관대출판부·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가·문화예술인들이 선정한 시 80편·영화 20편

오늘의 시·오늘의 영화

작가 엮음



"경쾌하고 즐거운 자, 그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울고 있는 사람의 어깨를 두 세 번 치고/황급히 떠나는 자다/ 벗어난 재킷도 깜빡하고 간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진지하게 가리았어 있다"(중략·유계영 작 '미래는 공처럼')

이 작품은 시인·평론가 등 동료 작가 100명이 지난해 발표된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 '2019 오늘의 시'로 뽑힌 작품이다.

출판사 '작가'가 해마다 펴내는 '2019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시'와

'2019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는 한해 동안 발표된 작품들에 대해 돌아보며 질문을 통해 좋은 시와 영화를 선정하는 작업으로 시와 영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된다. 올해 발행된 '오늘의 시'에는 등 모두 80

편의 시가 담겼다. 나태주의 '물고기 그림', 손택수의 '홍터 필경사', 신용목의 '대성당', 안도현의 '무빙', 허연의 '그해 강설'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책에는 나희덕의 '파일명 서정시', 문태준의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 '오늘의 시집' 19편도 함께 실렸으며 '2019 한국 시의 미학'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좌담과 유계영 시인 인터뷰도 만날 수 있다.

영화평론가, 문화예술인 100여명이 설문문에 참여한 '오늘의 영화'에는 모두 20편이 후보에 올랐다.

'공작', '암수살인', '완벽한 타인', '폴란드로 간 아이들', '미스백', '리틀 포레스트', '허스토리', '소공녀', '살아남은 아

이' 등 한국영화 10편과 '로마', '더 포스트' '쓰리 빌보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플로리다 프로젝트', '셰이프 오브 워터', '팬텀 스레드', '서지', '어느 가족' 등 외국영화 10편을 대상으로 최고작을 뽑았다.

선정 작품은 이창동 감독의 '버닝'과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보헤미안 랍소디'다. '버닝'은 유통회사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소설가 지망생 중수(유아인 분)와 우연히 만난 어릴 적 동네 친구 해미(전종서), 정체불명의 남자 밴(스티븐 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영화다. 국내에서 1000만명 가까이 동원하며 화제를 모은 '보헤미안 랍소디'는 록그룹 '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후보작들에 대한 글은 전찬일·황진미·정재형·김시군 등 영화 평론가들이 집필했다. 책 말미에 이창동 감독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작가각권 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시간의 의자에 앉아서=천체물리학자인 위베르 리브스는 말리코른 호수가 한쪽에 놓여진 '시간의 의자'에 의자에 앉아 경이롭지만 우려스러운 이 세상에 대해 풀어온 오랜 질문을 하나하나 떠올려본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넘나드는 지은이의 사색을 따라 도도하고 변함없이 흐르는 우주와 자연이라는 시간의 강물에 담긴 완벽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

<문학과학사·1만5000원>

▲우리의 새빨간 비밀=생리통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묵묵히 참아야 하고, 남자들이 내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걸까? 지은이 잭 파커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로, '생리의 열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생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생리를 세상에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시공사·1만5000원>

▲리마인더스=아무것도 잊지 못하는 음악 천재 소녀라, 사랑한 사람과 이별하고 상실감에 빠진 남자가 만나 그들의 모험을 시작한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찾아드는 회한과 의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싹트는 우정과 새로운 삶의 희망이 아름답고도 순수한 하모니를 이룬다.

<소소의책·1만4800원>



▲리마우스 로마사 II='리마우스 로마사'는 트로이에서 탈출한 아이네아스가 이탈리아에 정착한 이야기(기원전 753년)에서 시작해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로마 건국을 지나 리마우스 자신이 살았던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 약 744년간의 로마를 다루고 있다. 제2권은 원서 6-10권을 담은 것으로, 기원전 389년에서 기원전 293년까지 약 100년 동안 벌어진 끝까지 않는 전쟁을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현대지성·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동물도 권리가 있어요=비영리 단체 '카라'가 내용을 구성하고 썼다. 이 단체는 반려동물, 실험동물, 길에서 사는 동물 등 위기에 처한 모든 동물의 편에서 동물의 권리와 자유를 대변하려 노력하고 있다. 독자와 동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려 한다. <풀빛·1만2000원>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이 책은 제목처럼 엄마처럼 되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진 바다 같은 엄마. 진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엄마.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자라면서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세움출판·1만3800원>

▲오늘부터 국수 금지=국수 잔치를 좋아하는 루마울의 국수광꼬끼리는 쟁거 루만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법 때문에 혼란스럽다. 국수광꼬끼리는 불공평하



다는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척척만능 국수 가게를 만든다. 국수 잔치가 다시 열렸지만 쟁거루들이 국수 잔치를 방해하려 찾아온다. 과연 친구들은 쟁거루의 방해로 물리치고 국수 잔치를 열 수 있을까? <그린북·1만5000원>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층,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원 자언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입야, 계획관리지역

경매

- ★ [공장]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토지:3441,1㎡(1040,9평) 건물:1361,5㎡(411,9평)
감정가 16억8천6백만원 최저가 16억8천6백만원
- ★ [근린주택]영광군 법성면 토지:708㎡(214,2평) 건물:266,61㎡(80,6평)
감정가 5억2천8백만원 최저가 5억2천8백만원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대지 25351㎡(7668,7평)전원주택단지적합
감정가 27억1천2백255만원 최저가(70%)18억9천8백79만원

- ★ [공장용지]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대지:11065,1㎡(3347,2평)
감정가 24억7천8백만원 최저가 19억8천3백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대지:1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정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정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70%) 43억9천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정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25억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